

보물 제978호 〈白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 卷29〉의 조성 연대 및 발원자 고찰

원승현(元勝炫)

I. 머리말

II. 〈백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권29〉의 表紙畫 구성과 변화

1. 四周
2. 표제 상·하단
3. 蓮花

III. 〈백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권29〉의 변상도 세부 표현 비교

1. 세부 도상
2. 장엄 부분

IV. 편년 및 발원자 추정

V. 맺음말

국립한글박물관 전시운영과 학예연구원

사경은 表紙畫, 變相圖, 經文으로 구성되지만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일부가 소실되기도 한다. 특히 卷末 혹은 卷首 부분의 寫成記에는 사경의 조성 시기와 발원자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년작과의 양식 비교를 통해 편년을 추정한다. 보물 제978호 〈白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 卷29〉(이하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은 사성기가 소실된 사경으로, 양식 비교를 통해 조선 초에 조성된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시기 추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서체와 변상도 표현 일부이지만 이는 조선 초 사경 일부에 서만 확인되어 시기를 대표하는 특징으로 말하기 어렵다. 또한 이와 유사한 양식은 고려 말 사경에 서도 확인되는데 서체를 제외한 표지화, 변상도의 표현이 1350년 전후의 작례와 유사하다.

고려 말 사경은 세밀하고 사실적인 표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형식화, 도식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이런 흐름은 조선 초로 이어진다. 〈백지금니화엄경 권29〉는 변화의 전후 표현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표지화의 麻葉文과 변상도 四周의 경우 다른 사경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독특한 표현으로 주목된다.

한편 〈大方廣佛華嚴經 卷26〉(이하 〈백지금니화엄경 권26〉)은 지금까지 연구에서 소개되지 않은 사경으로 표지화, 변상도, 경문이 모두 온전하게 남아있다. 이 사경은 〈백지금니화엄경 권29〉과 크기, 구성, 세부 표현까지 모두 동일하여 조성 시기, 發願者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된다. 권말에 남아 있는 사성기에는 1348년 奇轍(?~1356)의 발원으로 조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양식을 통한 편년 추정 시기와도 일치한다.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은 사성기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조성 시기를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 초가 아닌 고려 말에 조성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백지금니화엄경 권26〉을 통해 두 사경은 고려 1348년 표현이 변화하는 시기에 수준 높은 장인에 의해 조성된 사경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고려 사경, 백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표지화, 마엽문, 기철

보물 제978호 〈白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 卷29〉의 조성 연대 및 발원자 고찰

원승현(元勝炫)

국립한글박물관 전시운영과 학예연구원

I. 머리말

寫經의 조성 시기는 經文의 마지막 혹은 變相圖 첫머리에 위치한 ‘寫成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경에 사성기가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은 아니며 재질적·양식적 요인, 인위적인 손상 등의 이유로 소실된 경우도 많다. 사성기가 없는 사경은 무기년작 사경으로 분류되어 表紙畫, 變상도의 형태 비교를 통해 조성 시기를 추정한다.

보물 제978호 〈白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周本 卷29〉(이하 〈백지금니화엄경 권29〉)도 뒷부분 일부와 사성기가 소실된 무기년작 사경이다(도 1). 이 사경의 조성 시기는 1988년 보물 지정 이후 현재까지 서체와 표현 일부를 바탕으로 조선 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 그러나 추정의 근거가 단편적이며 표지화, 變상도의 표현 다수가 고려 말의 특징과 유사함을 보이고 있어 편년의 재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의 표지화, 變상도의 사실적이고 세밀한 표현에 집중하여 조성 시기를 재추정하고자 한다. 특히 연구 진행에는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던 〈大方廣佛華嚴經 卷26〉 사경을 참고하여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의 명확한 편년과 발원자 추정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조선 초 사경은 고려 말 변화의 흐름이 이어져 나타나며 소수의 기년작만이 현전하고 있기 때문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원승현, 「고려 말 〈白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의 조성과 특징」,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의 일부 내용을 확대 연구하여 구체화한 논문이다.

1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의 조성 시기가 언급된 글은 다음과 같다.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서울: 문화공보부, 1989), pp.200-201; 국립중앙박물관, 『사경변상도의 세계』(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7), pp.264-265; 김종민, 「朝鮮時代 寫經研究」(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도 1. 〈白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 卷29〉, 고려 14세기 중반, 종이, 41.4×14.6cm, 개인 소장

에 보다 면밀한 비교가 필요하다. 현재 무기년작 사경의 편년을 추정한 연구는 다수 있지만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이 자세하게 다루어진 적은 없었다.² 본고는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의 양식적 특징과 세부표현을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새로운 편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 〈백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권29〉의 表紙畫 구성과 변화

사경의 表紙는 經名을 書寫하는 부분과 나머지 공간을 莊嚴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장엄 부분은 四周, 표제의 상단과 하단, 蓮花, 녕쿨로 구성되며 각 요소들은 繪畫的으로 표현되어 ‘表紙畫’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려 사경 표지화의 대표적인 양식과 표현은 연구된 바 있으며, 기년작 사경을 바탕으로 무기년작 사경의 편년을 추정하기도 하였다.³ 하지만 기존의 편년 추정 연구에서는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의 표지화가 포함되지 않았고 다른 사경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특별한 표현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다수의 사경 연구 중 편년 추정과 관련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권희경, 『高麗寫經의 研究』(서울: 미진사, 1986); 박도화, 「高麗金銀泥寫經畫(變相圖)의 樣式考察」, 『미술사학연구』184(1989), pp.19-38; 배영일, 「고려시대 華嚴經 寫經 變相圖의 편년고찰」, 『강좌미술사』16(2001), pp.213-233; 김종민, 앞의 논문(2007); 문선희, 「高麗時代『妙法蓮華經』寫經變相圖研究」(弘益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5).

3 권희경, 「高麗寫經의 表紙畫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17(1999), pp.7-50; 권희경, 「年代불확실한 高麗寫經의 表紙畫에 관한 연구(1)」, 『書誌學研究』24(2002), pp.5-60; 권희경, 「年代불확실한 高麗寫經의 表紙畫에 관한 연구(2)」, 『書誌學研究』25(2003), pp.5-60.

1. 四周

사주는 표지 사주와 표제 사주 두 부분이 존재한다. 사주는 기존 연구에서 다수 언급된 부분으로 모두 굵은 선(太線)과 얇은 선(細線)이 조합을 이루고 있으며 표지 사주에는 별도의 문양이 추가되기도 한다.

문양을 사용하지 않는 표제 사주는 태선과 세선을 한 번씩 사용한 I 형식과 태선을 중간에 두고 양쪽을 세선으로 그린 II 형식이 있다. 시기적으로 앞선 형태는 I 형식으로 13세기 말부터 1388년 〈妙法蓮華經 卷6〉까지 고려 말 전 시기에서 확인된다. 반면 II 형식은 14세기 중반에 해당하는 1351년 〈金剛般若波羅密經〉부터 확인되기 시작하여 주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은 1370년 이후이다.

표지 사주는 태선과 세선을 한 번씩 그린 I 형식, 문양이 가운데 위치하고 양쪽에 세선과 태선이 대칭을 이루는 II 형식, II 형식에서 표지 안쪽 부분으로 세선이 추가된 III 형식이 존재한다.⁴ I 형식은 13세기 말부터 1372년 〈大方廣佛華嚴經 普賢行願品〉까지 확인되고 있으며 II 형식은 1357년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까지 확인되고 있다. 반면 III 형식은 표제의 II 형식과 비슷한 시기인 1353년 〈妙法蓮華經 7卷本〉부터 확인되기 시작하여 1370년대 이후 주로 사용된다(표 1).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의 사주는 표제 사주 II 형식, 표지 사주 III 형식에 해당한다. 위의 표와 같이 두 형식은 모두 14세기 중반 처음 등장하는 형태로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의 조성 시기도 14세기 중반 이후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런데 표지 사주의 문양에는 다른 사경에서 보이지 않는 ‘麻葉文’이 사용되어 주목된다(도 2).

구분	형식	형태	1300	1325	1350	1375
표제 사주	I 형식					
	II 형식					
표지 사주	I 형식					
	II 형식					
	III 형식					

표 1. 사주 형식 분류 및 편년표



도 2.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의 표제 사주(上)와 표지 사주(下)

4 표지 사주 중에는 표제 사주 II 형식과 같이 태선을 중간에 두고 양쪽에 세선이 위치하는 형식이 존재한다. 하지만 확인되는 예가 1373년 〈妙法蓮華經 7卷本〉에 한정적이며 다른 사경에서 확인되는 예를 찾기 어려워 편년을 설명하기 어렵다.



도 3. 행촌 이암 필, <대방광불화엄경 권26>, 종이, 41.3×14.8cm, 고성이씨 팔회당종택(한국국학진흥원, 「은둔과 개혁, 군자의 삶」,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18)

마엽문은 고려 水月觀音圖, 螺鈿漆器, 조선 15세기 초 線描佛畫에서 확인되는 문양이다.⁵ 사경에 서는 2018년 처음 소개된 杏村 李岳(1297~1364) 筆 <大方廣佛華嚴經 卷26>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무기년작으로 조성 시기를 알 수 없으며 대다수 사경에서는 ‘닝쿨문’이 그려졌다(도 3).⁶

마엽문은 닝쿨문과는 형태적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만 지금까지 연구에서 언급된 예를 찾아 보기 어렵다. 하지만 점차 마엽문이 그려진 예가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고 다수의 문양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후 편년을 추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표제 상·하단

경명이 서사된 표제는 折帖本과 卷子本에 모두 존재하며 상단과 하단에 별도의 표현이 그려진다.⁷ 상단의 표현은 荷葉形, 仰花形, 겹양화형으로 나누어지며 양화형과 겹양화형에서 시기에 따른



5 대표 유물로는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水月觀音圖(고려 14세기), 日本 北村美術館 소장 螺鈿牧丹唐草文經函(고려 13~14세기), 日本 持福寺 소장 釋迦說法圖(1563년) 등이 있다.

6 행촌 이암 필 <大方廣佛華嚴經 卷26>은 2018년 고성 이씨 가문 소장품으로 처음 소개되었다. 전체 두 점으로 경문의 첫 장 상단에 쓰인 ‘杏村書法’과 내지의 후손 李周禎(1750~1818)이 기록한 발문을 바탕으로 행촌 이암이 서사한 사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표지화와 경문 일부만이 남아있는데 표지화의 크기, 세부 표현이 <백지금니화엄경 권29>과 유사하여 비슷한 시기 같은 장인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용인대학교 박물관, 『高麗國風』(용인: 용인대학교 박물관, 2018), p.228.

7 1371년 <金剛普門發願合部>에는 상·하단에 별도의 문양이 없고 표제부분만 존재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는 다른 사경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하단에 별도의 표현이 그려졌다.

하엽형	양화형	겹양화형
		
〈묘법연화경 7권본〉, 1340년, 일본 鍋島報效會	〈묘법연화경 권1〉, 1315년, 일본 金澤 大乘寺	〈묘법연화경 7권본〉, 1377년, 호림박물관

도 4. 표제 상단 양식 분류

복련좌형	연화좌형
	
〈묘법연화경 7권본〉, 1340년, 일본 鍋島報效會	〈묘법연화경 7권본〉, 1377년, 호림박물관

도 5. 표제 하단 양식 분류

변화가 확인된다(도 4).⁸ 이중 하엽형은 가장 많은 수가 확인되는 예이자 13세기 말부터 1388년 〈묘법연화경 권6〉까지 고려 말 전시기에 걸쳐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양식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화형과 겹양화형 중 시기적으로 앞서는 것은 양화형으로 13세기 말부터 1360년대 말에 해당하는 1367년 〈金剛般若波羅密經〉까지 확인되고 있으며 겹양화형은 1340년 〈묘법연화경 7권본〉부터 1389년 〈묘법연화경 권3〉까지 확인되고 있다. 두 양식의 시기가 겹치는 1340~70년에는 겹양화형이 양화형에 비해 다수가 확인되고 있어 새로운 양식의 등장이 기존 양식에 영향을 주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단의 양식은 覆蓮座形과 蓮花座形으로 나뉘어진다.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복련좌형으로 1386년 〈묘법연화경 권7〉까지 고려 말 전 시기에서 사용되어진 반면 연화좌형은 1332년 〈묘법연화경 8권본〉에서부터 확인된다(도 5). 그런데 연화좌형은 1370년 이전까지 1~2점의 적은 수만 확인되고 있으며 1370년 이후가 되어서야 주된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다.

8 '하엽형'은 기존 연구에서 '복련형 보개'로 지칭된다. 그런데 유사한 형태가 경패, 종, 도자, 부도 등에서 확인되고 연잎, 연꽃으로 지칭하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하엽형으로 지칭하였다.



〈묘법연화경 권2〉 1340년,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백지금니화엄경 권29〉, 개인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행원품 신중합부〉, 1350년,
국립중앙박물관(본관12728)

도 6. 유사 표제 상·하단 비교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의 표제 상·하단의 형태는 겹양화형과 연화좌형으로 1330~40년대 이후 시기에 해당한다. 특히 1330년 이후 조성된 사경 중에는 〈백지금니화엄경 권29〉과 표제 상·하단이 유사한 예가 있어 비교를 통해 편년의 추정 범위를 좁혀 볼 수 있다.

유사한 예의 사경은 1340년 〈묘법연화경 7권본〉과 1350년 〈大方廣佛華嚴經 行願品 神衆合部〉로 모두 상단에 겹양화형, 하단에 연화좌형이 그려졌다(도 6). 그런데 상단의 겹양화형은 1340년 높고 화려하며 아름답게 장식되던 銀點이 1350년에 들어서면서 蓮瓣의 수가 감소하고 높이가 낮아졌으며 은점 장식 또한 투박해졌다. 하단의 연화좌도 은점 장식의 有無에 차이는 있지만 기본 형태의 세밀함이 감소하고 단순해졌다.

이러한 변화 요인은 조성 장인의 수준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1350년 이후의 겹양화형과 연화좌형의 형태가 사실성과 세밀함이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기 변화에 따른 차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같은 흐름에서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의 형태는 1350년 〈대방광불화엄경 행원품 신중합부〉보다는 1340년 〈묘법연화경 7권본〉의 형태와 유사함을 보이고 상단 양화형의 연판수와 화려함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1340년과 1350년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3. 蓮花





연화는 표지화 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로 앞·뒷면에 3~4개 정도가 그려지며

앞면의 경우는 표제 부분과 겹쳐 일부만 그려지기도 한다.⁹ 완형으로 그려진 연화는 크게 花心과 蓮瓣 부분으로 구성되며 각 부분은 세밀하고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진 것은 세 부 요소에 해당하는 연판, 葉脈, 꽃술, 꽃술받침, 꽃향기 등으로 각 요소들의 특징과 변화가 연구되었다.¹⁰ 본 논문에서는 개별 구성 요소 중 화심 부분 특히 꽃술과 꽃술받침의 표현 방법에 집중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꽃술과 꽃술받침은 연화의 화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표지화에 연화가 그려진 경우 함께 표현되는 요소이다. 당시 장인들은 가는 세선을 사용하여 꽃술과 꽃술받침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는데 꽃술과 꽃술받침을 개별적으로 표현하거나 하나의 윤곽선 내에 함께 표현하였다. 두 가지 표현 중 개별적으로 표현한 방법이 보다 사실적인 표현에 해당하며 각 표현은 시기에 따른 변화가 확인된다(도 7).

시기적으로 앞선 표현은 꽃술과 꽃술받침을 각각 표현하는 것으로 13세기 말부터 1350년 이전의 사경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편 하나의 윤곽선 내에 함께 표현하는 방법은 1320년대부터 고려 말까지 확인되고 있는데 두 표현이 모두 확인되는 1320~50년에는 적은 수로 각각 표현하는 방법과 혼용되고 있다. 혼용기가 끝난 이후에는 하나의 윤곽선 내에 표현하는 방법이 주된 표현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런데 하나의 윤곽선 내 표현하는 방법은 시기에 따른 비중 차이도 있지만 양식적인 변화도 존재한다. 주된 표현으로 자리 잡게 되는 1360년을 기준으로 앞선 시기에서는 화심을 비롯한 꽃술과 꽃술받침이 균형감 있는 모습에 金·銀泥가 모두 사용되어 보다 회화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후 시기에서는 균형 잡힌 모습은 사라지고 후대로 갈수록 가로로 긴 원형으로 변화하면서 꽃술과 꽃술받침이 위아래가 눌린 느낌을 주게 된다. 더하여 은니는 잘 사용되지 않고 금니만을 주로 사용하여 색채감이 사라지게 되었다.

꽃술과 꽃술받침을 각각 표현한 경우		꽃술과 꽃술받침을 함께 표현한 경우	
13세기 말~1350년		1320~1360년	1360년 이후
			
〈묘법연화경 권〉, 1315년, 일본 金澤 大乘寺		〈백지금니화엄경 권29〉, 개인 소장	
〈대방광불화엄경 권56〉, 1336년, 개인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377년, 호림박물관	

도 7. 연화의 화심 표현의 분류

9 연화는 다른 연구에서 寶相華文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두 가지 명칭 중 연화로 지칭한 것은 표지화의 초기 연구인 권희경, 앞의 논문(2002, 2003)에서 연화로 언급되고 있고, 전반적인 형태가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理想化된 형태인 보상화문 대신 연화로 지칭하였다.

10 권희경, 앞의 논문(1999, 2002, 2003).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의 연화는 꽃술과 꽃술받침을 각각 표현하고 있으며 화심에 은니를 함께 사용하여 1350년 이전의 모습에 해당한다. 보다 세부적인 편년의 추정에는 유사 예를 통한 비교가 필요한데 화심의 표현은 정형화된 양식이 없어 추정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조선 초 사경에 영향을 주는 1370년 이후의 양식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앞서 살펴본 사주, 표제 상·하단의 추정 시기와의 중첩되고 있어 주목된다.

Ⅲ. 〈백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권29〉의 변상도 세부 표현 비교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의 변상도는 兜率天宮에서의 毘盧遮那佛의 가르침 장면을 그린 것으로, 『華嚴經』 권29의 내용인 菩薩의 功德을 衆生들에게 돌리는 「十廻向品」 중 제7회향의 공간적 배경에 해당한다. 변상도는 경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種類, 卷에 따라 相異하며,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은 경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요소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통해 다루어진 요소와 함께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요소들을 다루고자 하며 경전과 관련된 세부 도상과 장엄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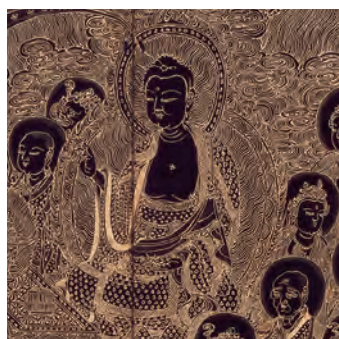
1. 세부 도상

1) 佛 · 菩薩

사경은 불교 경전을 바탕으로 하며 변상도에는 불 · 보살을 중심으로 한 가르침 장면이 그려진다. 주불을 비롯한 보살은 변상도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부분이므로 시기에 따른 다양한 변화가 확인되며,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의 주불인 비로자나불과 보살에 대해서는 넓은 얼굴과 좁은 이목구비가 고려 말과는 다른 느낌을 준다고 언급된바 있다.¹¹⁾

실제 확인되는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의 불 · 보살의 도상은 기존 언급과 같이 얼굴이 넓고 이목구비가 좁다. 하지만 이러한 도상이 고려 말과 다르다는 점은 확인이 필요하다. 조선 초 기년작 사경 중 설명하는 특징이 확인되는 것은 1415년 내소사본 〈묘법연화경 7권본〉(불교중앙박물관)뿐이다. 이를 제외한 다른 사경에서는 얼굴이 좁고 이목구비가 넓게 그려져 있어 설명된 표현 방법이 조선 초의 특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도 8). 더하여 내소사본 〈묘법연화경 7권본〉과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을 보다 자세히 비교하면 다수 부분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11 김중민, 앞의 논문(2007), p.151;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2007), p.264.



〈묘법연화경 7권본〉, 1340년, 일본 鍋島報效會



〈백지금니화엄경 권29〉, 개인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353년, 일본 根津美術館



〈묘법연화경 권5〉, 1400~1404년,
국립중앙박물관(덕수2466)



내소사본 〈묘법연화경 7권본〉, 1415년,
불교중앙박물관



〈묘법연화경 권1〉, 1422년,
국립중앙박물관(기탁33)

도 8. 고려 말~조선 초 불·보살의 얼굴 표현 비교

차이점은 비율, 이마와 눈썹 형태, 필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먼저 비율은 얼굴이 신체 전체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은 전체의 1/4 정도를 차지하여 안정감 있고 균형 잡힌 모습을 보인다. 반면 내소사본 〈묘법연화경 7권본〉은 얼굴이 전체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인 신체 형태가 좁고 짧은 느낌을 주고 있다.

이마와 눈썹은 표현 방법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이마는 중간 부분이 향하는 방향이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의 경우 아래로 향하고 있는 반면 내소사본은 위를 향해 그려졌다. 이마의 표현 방법은 기존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 시기를 대표하는 특징이라기보다는 장인의 기량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눈썹도 〈백지금니화엄경 권29〉에서는 좌측 눈썹의 길이가 길고 마지막 끝선을 살짝 위로 올리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내소사본 〈묘법연화경 7권본〉에서는 짧은 길이에다가 일 반적인 아치형 눈썹으로 그려졌다.

필선은 앞서 언급한 부분을 포함한 전체적인 표현에 적용된다.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은 外線을 비롯한 衣褶線의 표현이 유려하며 끊김이 없다. 하지만 내소사본 〈묘법연화경 7권본〉은 필선이 투박하고 선이 중간에 끊겨진다.

하지만 설명한 차이점은 구체적인 편년을 결정하는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고려 말 1340~50년대 조성된 사경의 불·보살 표현이 〈백지금니화엄경 권29〉와 동일한 표현을 보이고 있으며 조선 초의 모습에서는 상반된 표현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기존 알려졌던 불·보살의 특징이 조선 초만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우며 고려 말의 표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天蓋

천개는 일반적으로 불보살상의 머리 위쪽에 위치하는데 변상도의 경우 다수의 불보살상이 고려 집에 따라 주로 주불에서 확인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천개의 위치 변화에 집중하여 초기 완형의 형태에서 후대로 갈수록 점차 위로 올라가 밀부분만 표현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변화의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¹²

천개의 위치 변화는 이른 시기라고 볼 수 있는 1315년 〈묘법연화경 권1〉에서부터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1350년까지 위치 변화가 확인되는 예는 3~4점 정도로 적은 수이며 주된 표현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은 1370년 이후이다. 그런데 천개는 기존의 알려진 위치 변화 외에 장식 요소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도 9).

천개를 보다 화려하게 장식하는 요소는 1350년 이전에는 천개의 위치 변화와 관계없이 세밀하고 사실감 있게 표현된다. 하지만 1350년 이후에서는 장식 요소의 세밀함과 사실감은 사라지며 생략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 흐름 속에서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의 천개는 밀부분만 표현된 복련형에 사실적인 장식 요소가 결합된 모습으로 주목된다.

〈백지금니화엄경 권29〉 천개의 편년은 기존 연구에 따라 위치 변화에 집중하여 추정하면 1315년 이후에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377년 조성된 〈묘법연화경 7권본〉은 〈백지금니화엄경 권29〉과 동일한 복련형 천개에 해당하여 두 사경이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377년 〈묘법연화경 7권본〉 천개는 장식 요소가 단순하며 연판의 외선과 안쪽을 채운 細線의 筆線이 많은 차이가 확인된다.¹³ 그리고 장식 요소의 흐름은 1377년 이후 조선 초 사경까지 지속적으로 단순해지고 있어 〈백지금니화엄경 권29〉과 동일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377년 이전에는 복련형 천개가 확인되는 예가 없어 장식 요소를 통해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의 편년을 추정해볼 수 있다. 사실적인 장식 요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350년 이전의 사경에서 확인된다. 대표 예로 1353년 〈묘법연화경 7권본〉은 기본틀은 완형에 가깝지만 장식 요소에는 작은 원문만을 사용하고 있어 변화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백지금니화엄경 권29〉와 가장 유사한 장식 요소는 1340년 〈묘법연화경 7권본〉에서 확인되는데 특히 길게 내려오는 수식 장식의 표현이 유사하다.

12 문선희, 앞의 논문(2005), p.121. 후대 조성된 1390년 〈大方廣佛華嚴經 普賢行願品〉의 천개는 완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변상도의 기본 형식이 일반적인 사경과 다르다.

13 1377년 〈묘법연화경 7권본〉의 경우 권7에서는 완형으로 표현된 천개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세부 표현과 수식 장식이 단순화되었으며 다른 권에 표현된 천개의 경우 장식 표현을 생략하기도 하였다.



〈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 1334년, 호림박물관



〈묘법연화경 7권본〉, 1340년, 日本 鍋島報效會



〈묘법연화경 7권본〉, 1353년, 日本 根津美術館



〈백지금니화엄경 권29〉, 개인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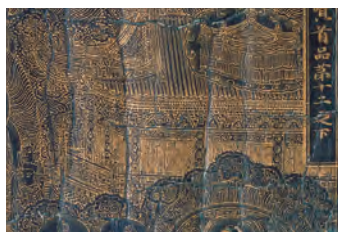


〈묘법연화경 7권본〉, 1377년, 호림박물관



〈묘법연화경 권2, 3, 4, 7〉, 1385년, 국립중앙박물관(덕수2467-2470)

도 9. 천개의 종류와 변화



〈大方廣佛華嚴經 卷15〉, 1334년,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妙法蓮華經 7卷本〉, 1340년, 日本 鍋島報效會



〈妙法蓮華經 7卷本〉, 1377년, 호림박물관

도 10. 건축물의 공포 표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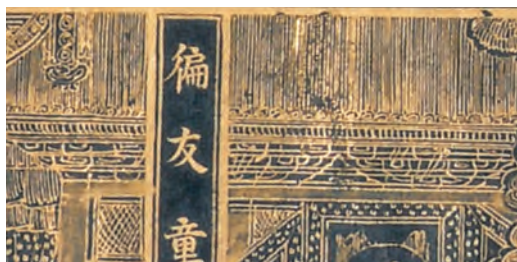
그리고 보다 앞선 시기에 해당하는 1334년 〈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의 경우 장식 요소는 사실적이지만 기본적인 모습에서 차이가 있어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은 1340년대의 영향을 받아 1350년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3) 建築物

건축물은 경전 내용과 관련하여 그려지는 소재이므로 확인되는 예나 화면에서의 비중은 적은 편이다. 하지만 경전에 관계없이 표현되는 소재이며 사경의 세밀함과 사실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에 해당한다. 현재 건축물에 대한 연구는 형태 변화, 模本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 연구되어 있다.¹⁴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건축물의 세부 표현인 공포 부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고대 동양의 건축물은 木造建築으로 수직, 수평의 부재가 서로 結構되어 완성되며, 日照에 맞추어 처마를 둔다. 이 때 처마와 기둥이 맞닿는 부분에는 棋包 부재를 두어 힘을 분산시킴과 동시에 장식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변상도를 그린 장인들은 변상도에 건축물을 표현하면서 공포 부재를 함께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도 10).

14 주남철, 김도경, 「高麗時代 觀經變相圖의 殿閣圖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11(1995), pp.93-107; 권희경, 「年代 불확실한 고려 후기 사경변상화의 양식분석」, 『書誌學研究』32(2005), pp.443-479; 문선희, 앞의 논문(2005), pp.116-120.



〈대방광불화엄경 권31〉, 1337년, 삼성미술관 리움



〈백지금니화엄경 권29〉, 개인 소장

도 11. 공포 표현 비교

1334년 〈大方廣佛華嚴經 卷15〉은 당시 장인들이 얼마만큼 건축물을 세밀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는지 잘 보여주는 예이다. 건축물은 변상도 전체에서 일부분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팔작지붕의 건물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붕의 아래로는 습閣壁, 공포벽, 귀포 등 세부 부재까지 자세하게 그려 넣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입체적인 건축물은 다른 사경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대다수의 경우 단면도 형태로 그려졌다.

단면도 건축물이 그려진 예들도 시기에 따라 공포 부재의 有無가 확인된다. 1340년 〈묘법연화경 7권본〉의 경우 건축물에 공포 부재가 표현되고 있는 반면 1377년 〈묘법연화경 7권본〉에서는 생략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시기 사이에 해당하는 1350~60년대에는 건축물이 표현되는 예를 찾기 어려워 보다 명확한 변화 시기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요소들의 변화 흐름과 같이 1350년대까지 건축물에 공포가 표현되다가 사라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의 건축물은 대다수의 예와 같은 단면도 형태로 변상도 내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포, 장식 기와와 같은 세부 부재가 표현되어 있어 14세기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337년 〈대방광불화엄경 권31〉은 공포 표현이 〈백지금니화엄경 권29〉와 유사함을 보이고 있어 앞선 양식이 이어져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도 11).

2. 장엄 부분

1) 사주

변상도에는 표지화와 동일하게 선과 문양을 기본으로 하는 사주가 존재한다. 경전의 내용보다는 장엄적 요소에 해당하며 문양으로 金剛杵와法輪이 각각 한 번씩 반복 배치되는 것이 기본적인 형태이다.¹⁵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기본 형태 중 금강저가 주로 다루어졌으며 14세기 중반을 시작으로 끝

15 본 논문에서 지칭한 '법륜'은 기존 연구에서 네 귀퉁이의 동심원문을 통해 '羯磨'로 지칭하기도 한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조성된 표지화의 연화, 변상도의 건축물은 법륜보다 작은 부분이지만 세밀하며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수준 높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장인들이 갈마를 표현하고자 하였다면 네 귀퉁이에 동심원문이 아닌 명확한 鉢를 그

부분의 삼고가 가운데로 모이고 반대부분은 갈고리형으로 나누어지는 모습으로 정형화된다.¹⁶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의 금강저는 정형화된 모습으로 14세기 중반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도 12). 정형화된 금강저가 변상도의 각 가로 폭마다 하나씩 그려졌으며 1, 4쪽의 세로에는 두 개가 그려졌다.¹⁷ 그런데 가로 폭에 그려진 금강저는 양옆의 법륜이 절첩면과 겹치면서 2, 3쪽은 좌우 모두 절반만 그려지는 반면 1, 4쪽은 한쪽만 절반으로 그려지게 된다. 각 폭의 가로 크기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1, 4쪽의 금강저는 법륜 절반 크기만큼 길이가 짧지만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만큼 균형 있게 잘 그려졌다.

법륜은 금강저와 함께 변상도 사주를 구성하는 요소이지만 지금까지 연구에서 자세하게 언급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¹⁸ 법륜의 기본 형태는 同心圓文을 바탕으로 하며 내부의 문양에서 변화가 확인되는데 동심원문의 첫 번째 여백을 넓게 한 후 線文으로 채운 형태와 곡선의 菱形으로 채우는 형태로 나누어진다(도 13).

두 형태는 시기에 따라 확인되는 예가 다른데 앞선 시기에서 확인되는 것은 첫 번째 여백을 선문으로 채운 형태로 13세기 말부터 1357년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까지 확인되고 있으며 곡선의 능형으로 채워지는 형태는 1370년대 이후 사경에서 확인된다. 더하여 선문으로 가득 채운 형태에는 네 귀퉁이에 작은 동심원문이 함께 표현되는데 곡선의 능형으로 표현된 경우에서 생략되고 있어 문양의 변화와 함께 사라지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의 법륜은 우선 네 귀퉁이에 작은 동심원문이 존재하고 있어 1370년 이전에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중심이 되는 안쪽 문양이 첫 번째 여백을 선문으로 가득 채운 다음 안쪽에 동심원문이 아닌 곡선의 능형이 그려져 있다. 즉 법륜의 대표 형태가 함께 표현된 것으



도 12.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의 사주 금강저와 법륜



〈묘법연화경 7권본〉, 1340년, 일본 鍋島報效會
〈백지금니화엄경 권29〉, 개인 소장
〈묘법연화경 7권본〉, 1377년, 호림박물관

도 13. 법륜의 종류와 변화

로 생각된다. 더하여 후대로 가면 네 귀퉁이에 동심원문은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장인들의 실력이 쇠퇴하였기 때문도 있지만 그리고자 하는 대상이 동심원문의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법륜'으로 지칭하였다.

16 권희경, 「고려 후기 개인발원 고려사경 변상화의 양식 분석」, 『書誌學研究』31(2005), p.176.

17 기존 연구에서는 금강저의 개수를 통해 편년을 추정하기도 하였다. 변화는 1350년을 기준으로 앞선 시기에는 세로가 가로에 비해 1/2, 1/3 정도의 개수를 보이며 이후 시기에는 가로 6개, 세로 3개의 배치가 주를 이룬다고 하였다. 배영일, 「高麗時代 華嚴經 寫經 變相圖의 研究」(東國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4), pp.85-87.

18 법륜이 언급된 연구에서 중점으로 다루는 것은 네 귀퉁이의 문양이며 내부 문양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권희경, 앞의 논문(2005), pp.153-191.

로 다른 사경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형태에 해당한다. 이러한 형태는 동일한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편년 추정에는 어렵지만 네 귀퉁이의 동심원문을 통해 고려 말 1370년 이전 두 형태의 변화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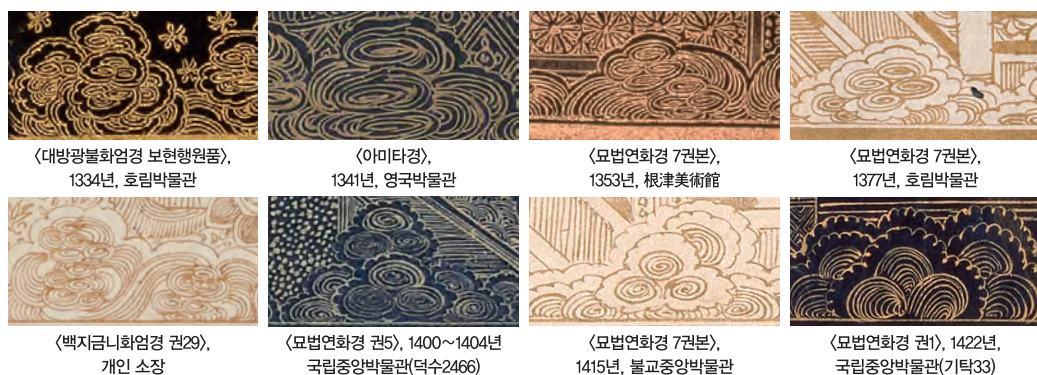
변상도의 운문은 現世와 佛世界를 구분하거나 장면의 구획을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그려진다. 경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요소로 일찍부터 연구되었으며 운문의 변화에 대해서는 초기 사실감 있는 모습이 장식화, 형식화된다고 설명한다.¹⁹ 형식화된 운문은 1330년대부터 등장하는데 중심에 와문이 3~4개가 모여 있고 이것을 1~2개의 파상문의 윤곽선이 감싸는 형태를 말한다.

운문의 변화 과정은 파상문의 윤곽선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며 중심의 운문은 후대로 갈수록 중첩된 형태에서 맞닿은 형태로 변화한다(도 14). 1334년 <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은 초기 형식화된 형태에 해당하는데 파상문의 윤곽선이 중심 원문과 거리를 두고 두 개의 층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후 1340~50년대에는 1개 층으로 감소하였고 중심 원문과의 위치도 가까워졌다.

1370년대 말에 들어서는 1330년대와 동일하게 파상문의 윤곽선이 두 개 층을 이루고 있는데 초기에 비해 파상문의 간격이 좁고 반복된 표현으로 도식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조선 초까지 이어져 나타난다.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의 운문은 3~4개의 와문이 중심을 이루고 한 개의 파상문 윤곽선이 감싸고 있어 1330년대 이후의 형식화된 표현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운문의 표현을 영지버섯과 같은 모습으로 이전에서 볼 수 없는 표현이라고 하였다.²⁰

하지만 확인되는 바와 같이 조선 초의 운문은 중심 와문이 중첩되기보다는 맞닿은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1400~1404년 <묘법연화경 권5>를 제외하면 도식화된 파상문이 두 개 층을 이루고 있다. 오



도 14. 고려 말~조선 초 운문의 종류와 변화

19 권희경, 앞의 논문(2005); 배영일, 앞의 논문(1994); 문선희, 앞의 논문(2005).

20 김종민, 앞의 논문(2007), p.151.

히려 유사한 표현은 1341년 <아미타경>과 1353년 <묘법연화경 7권본>에서 확인되며 두 사경의 전후 시기의 운문은 파상문의 윤곽선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의 운문은 조선 초보다는 고려 말 1340~50년대의 표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3) 散花

산화 표현은 변상도 내 여백 부분에서 주로 확인되며 모든 사경의 변상도에서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의 여백에는 산화 표현이 존재하는데 기존 연구에서 구체적인 꽃의 모습이며 여백이 많아 고려 말 사경과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²¹

그런데 조선 초 기년작 사경 중 산화 표현이 확인되는 예는 1422년 <묘법연화경 권1> 뿐이다. 이를 제외한 다른 사경에서는 산화 표현이 확인되지 않으며 여백을 작은 원문으로 채우고 있다. 유일하게 산화가 표현된 <묘법연화경 권1>도 구체적인 꽃의 모습보다는 간략화되어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의 산화 표현을 조선 초로 보기는 어렵다(도 15).

기존의 설명과 적합한 산화 표현은 고려 말 사경에서 확인된다. 1334년 <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과 1350년 <대방광불화엄경 행원품 신중합부>가 대표 예로 두 사경의 산화 표현이 구체적인



<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 133년,
호림박물관



<大方廣佛華嚴經 行願品 神衆合部>, 1350년,
국립중앙박물관(본관12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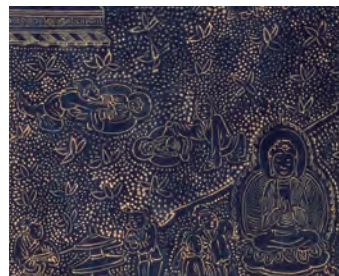
<백지금니화엄경 권29>, 개인 소장



<묘법연화경 권5>, 1400~1404년,
국립중앙박물관(덕수2466)



<묘법연화경 7권본>, 1415년,
불교중앙박물관



<묘법연화경 권1>, 1422년,
국립중앙박물관(기탁33)

도 15. 고려 말~조선 초 산화 비교

21 김중민, 앞의 논문(2007), p.151.

꽃의 표현에 해당하며 일정 간격을 두고 그려져 많은 여백이 확인되고 있다. 산화 또한 사경에 따라 다양하게 확인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편년의 추정은 어렵지만 조선 초 양식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조성 시기는 고려 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편년 및 발원자 추정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은 표지화, 변상도의 표현들이 고려 말과 유사함을 보이고 있으며 아래의 표와 같이 공통적으로 1350년 전후 시기의 사경들과 유사함이 확인된다(표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성 시기가 조선 초로 추정된 것은 서체 부분이 시기 추정의 큰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체는 주로 사경의 경문을 통해 연구되며 경문은 사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서체가 독립된 연구 분야로 인식되면서 미술사 연구에서는 다루어진 예가 적다. 현재 고려 사경의 서체 연구는 字形을 바탕으로 한 비교와 書寫者의 運筆에 따른 筆致로 나누어진다.²²

연구의 방법은 차이가 존재하지만 모두 서체의 규명과 영향 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사경의 서체가 歐陽詢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보인다. 하지만 趙孟頫體의 유입

표 2. 〈백지금니화엄경 권29〉 편년표

		1300	1325	1350	1375
표지화	표제 사주				
	표지 사주				
	표제 상단				
	표제 하단				
	연화				
변상도	사주 금강저				
	사주 법륜				
	운문				
	천개				
	건축물				

22 이은희, 「高麗寫經書體에 대한 考察」, 『佛教美術』6(1981), pp.53-88; 권희경, 『고려의 사경』(대구: 글고운, 2006); 김중민, 「麗末 鮮初 寫經書體에 대한 研究」(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이완우, 『우리나라의 사경 서풍』, 『사경변상도의 세계』(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7).

경명	經	大	法	子	諸
〈묘법연화경 권1〉, 1294년, 일본 京都 寶積寺					
〈백지금니화엄경 권29〉, 개인 소장					
〈묘법연화경 권5〉, 1400~1404년, 국립중앙박물관(덕수2466)					
〈묘법연화경 7권본〉, 1415년, 불교중앙박물관					
〈묘법연화경 권1〉, 1422년 국립중앙박물관(기탁33)					

도 16. 고려 말~조선 초 서체 비교

과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진다.²³ 論點이 되는 조맹부체는 일반적으로 가는 필획을 바탕으로 妍媚華麗하다고 설명되는데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의 서체는 필획이 곧고 두껍게 서사되어 있어 조맹부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²⁴

기존 연구에서 언급한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의 서체는 조선 초에 유행하던 후중건실한 필체가 1415년 내소사본 〈묘법연화경 7권본〉과 유사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유사한 형태로 설명하는 내소사본 〈묘법연화경 7권본〉(불교중앙박물관)의 서체는 굵고 힘찬 필획이 안진경체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²⁵

안진경체는 장엄하고 정중한 건엄장중한 필체라고 설명되며 기존 설명과 같이 두 사경에 모두 동일하게 확인된다. 그런데 내소사본 〈묘법연화경 7권본〉을 제외한 다른 조선 초 사경들의 서체는 상

23 조맹부체가 고려 사경에 유입되어 혼용 빈도가 점차 증가한다고 보는 의견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권희경, 앞의 책(2006), p.144; 김종민, 위의 논문(2003), pp.50-51. 반면 조맹부체의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실제 필적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완우, 앞의 책(2007), p.327.

24 최완수, 『秋史名品』(서울: 현암사, 2017), p.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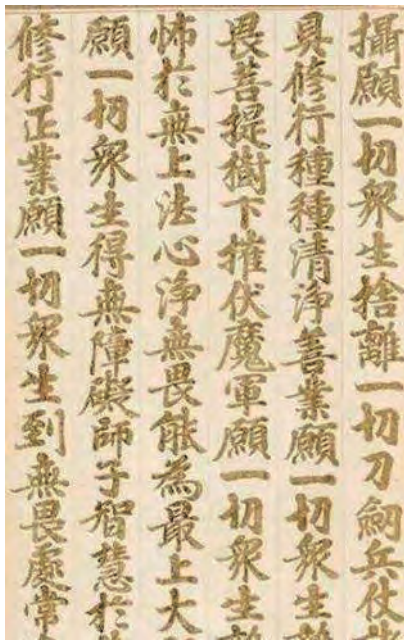
25 김종민, 앞의 논문(2007), pp.83-84, 151-152.

대적으로 얇은 필체로 서사되어져 있어 후중건실한 필체를 바탕으로 조성 시기를 조선 초로 말하기는 어렵다(도 16).

더하여 〈백지금니화엄경 권29〉와 유사한 필체의 사경은 조선 초 뿐만 아니라 고려 말 사경에서도 확인된다. 1294년 〈묘법연화경 권1〉을 비롯한 여러 예들이 곧고 두꺼운 필체로 서사되었으며 그동안 소개되지 않은 사경 중에는 〈백지금니화엄경 권29〉과 동일한 書寫者로 추정되는 예도 존재한다.

서사자가 동일한 사경으로 추정되는 것은 〈白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 卷26〉(이하 〈백지금니화엄경 권26〉)으로 白紙 위에 金泥를 사용하여 조성되었다. 서사된 경문은 전체적으로 필선이 곧고 두껍게 서사되어 있으며 字形 또한 〈백지금니화엄경 권29〉과 동일한 형태를 보인다(도 17).

〈백지금니화엄경 권26〉은 개인 소장본으로 표지화, 변상도, 경문, 사성기까지 모두 온전하게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 소개된 바가 없다. 2008~2009년 일본 도치기, 시즈오카, 미야기, 오카야마 지역에서 진행된 ‘조선 왕조의 회화와 일본(朝鮮王朝の繪畫と日本)’이라는 전시에서 공개된 바 있지만 전시 도록에는 사경의 사진이 변상도와 경문 일부만 있고 별도의 설명도 없어 크기와 대략적인 형태만 확인이 가능하다(도 18).



도 17. 〈백지금니화엄경 권26〉의 경문 일부, 1348년, 종이, 41.5×14.5cm, 개인 소장(『조선왕조의 회화와 일본』—소타쓰, 다이가, 지쿠추도 배운 이웃 나라의 미, 오사카: 요미우리신문, 2008.)

기록에 따르면 〈백지금니화엄경 권26〉의 세로 크기는 41.5cm로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의 세로 크기인 41.4cm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고려 사경의 세로 크기는 대부분 30cm 정도의 크기로 조성되었는데 이는 사경을 대표하는 특징 중 하나로 언급되기도 한다.²⁶ 그렇기 때문에 두 사경은 크기의 유사성만으로도 주목된다.

유사점은 크기 외에 표지화, 변상도에서도 확인된다. 보다 세부적인 사진들이 2016년 中国 嘉德 경매에 출품되는 과정에서 공개되었고, 이를 통해 다수의 유사점들을 살펴볼 수 있다.²⁷

표지화는 사주, 표제 상·하단, 연화 등 모든 구성이 동일하다. 표제 상단과 하단은 겹양화형과 연화좌형으로 그려졌으며 연화의 화심에 해당하는 꽃술과 꽃술받침은 개별적으로 표현되었다. 사주는 문양을 중심으로 바깥쪽에는 세선과 태선이 그려지고 안쪽에는 세선, 태선, 세선이 그려져 동일한 구성에 해당한다. 그런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사주의 문양으로 마엽문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6 박도화, 앞의 논문(1989), p.23.

27 〈백지금니화엄경 권26〉은 2016년 中国 嘉德 경매에 출품되어 거래되었다. 경매 기록을 보면 이 사경의 원 소장자는 일본의 구하라 후사노스케(久原房之助, 1869~1965)라고 기록되어 있다.

마엽문은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을 비롯해 <행촌 이암 필 화엄경>에서만 확인되던 문양이었다. 두 표지화는 마엽문을 비롯한 크기, 구성이 동일하여 고려 말 사경으로 추정하였지만 사성기가 없어 명확한 조성 시기를 추정하기 어려웠다. 기년작에 해당하는 <백지금니화엄경 권26>은 행촌 이암의 생몰년(1297~1364)과도 부합되어 두 사경의 편년을 보다 명확하게 추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변상도 또한 전체적인 표현이 유사한데 특히 앞서 살펴본 표현들이 모두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다. 경전의 내용과 관련된 불·보살, 천개, 건축물을 비롯하여 장엄 부분에 해당하는 사주, 운문, 산화 표현까지 기본 표현을 비롯한 구성, 배치가 동일하다. 그 중에서도 사주의 법륜은 동심원문의 첫 번째 여백을 선문으로 채운 다음 안쪽으로 곡선의 능형을 채운 <백지금니화엄경 권29>만의 독특한 특징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도 19).

이와 같이 두 사경은 표지화, 변상도의 기본 표현이 유사하고 <백지금니화엄경 권29>만의 특징으로 언급되었던 표지화의 마엽문과 변상도의 법륜이 동일하게 확인된다. 이로 인해 두 사경은 같은 시기 동일 인물의 발원에 의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조성과 관련된 내용은 <백지금니화엄경 권26> 卷末에 남아있는 사성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가 이 대승공덕으로 공손히 황제폐하의 億載와 황후마마의 齊年, 황태자 전하의 千秋, 천하의 태평과 법륜이 항상 돌아가기를 바라옵니다. 대원 지정 8년 무자 4월 일. 공덕주 참지정사 삼중대광 덕성부원대군 기철 지.²⁸

사성기를 통해 <백지금니화엄경 권26>은 1348년 奇轍(?~1356)이 발원하여 조성한 사경임을 알 수 있다. 기철은 원나라 順帝(1333~1368)의 후궁에서 황후까지 오른 기황후의 친오빠로 원나라의 힘을 바탕으로 고려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²⁹

기철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부정적이지만 고려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경 조성에는 최상급의 재료가 사용되고 당시 가장 높은 실력을 가진 장인이 동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14세기 중엽의 사경들이 양식적으로 변화하고 간소화되는 것에 반해 앞선 시기의 수준 높은 표현들이 이어져 나타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성 시기가 명확하게 확인됨으로써 변화의 시기 내 하나의 편년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경으로 <백지금니화엄경 권29> 역시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 초 사경이 아닌 고려 말 1348년 기철과 관련한 수준 높은 사경으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8 伏茲 大乘功德恭願 皇帝億載 皇后齊年 皇太子千秋 天下太平 法輪常轉者
大元至正八年戊子四月 日 功德主 參知政事 三重大臣 德城府院大君 奇轍誌

29 기철이 본인의 권력을 바탕으로 일삼았던 행동들은 『高麗史』의 기록에서도 확인되며 1356년에는 반역을 꾸미다 恭愍王(1330~1374)에게 숙청당하기도 하였다. 『高麗史』卷131, 列傳, 奇轍.



도 18. 〈白紙金泥大方廣華嚴經 卷26〉, 1348년, 종이, 41.5×14.5cm, 개인 소장(조선왕조의 회화와 일본—소타쓰, 다이가, 자쿠추도 배운 이웃 나라의 미., 오사카: 요미우리신문, 2008.)



도 19. 〈白紙金泥大方廣華嚴經 卷29〉, 고려 14세기, 종이, 41.4×14.6cm, 개인 소장

V. 맺음말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은 1988년 보물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서체와 표현의 차이를 근거로 조선 초 작품으로 소개되어 왔다. 하지만 표지화, 변상도의 세부 표현을 비교하여 고려 말 1350년 전 후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추정 시기에 조성된 〈백지금니화엄경 권26〉은 명확한 조성 시기와 발원자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사경으로 주목된다. 연구를 통해 소개된 바가 없고 현소장처를 알 수 없어 자세한 비교는 어렵지만 남아있는 자료를 통해 〈백지금니화엄경 권29〉와 크기, 양식, 구성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다른 사경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표지화 사주의 마엽문, 변상도 사주의 법륜이 동일한 표현을 보이고 있어 발원자, 조성 시기가 같다고 보았다.

〈백지금니화엄경 권29〉와 같은 시기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백지금니화엄경 권26〉의 남아있는 사성기에는 1348년 기철의 발원으로 조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기철은 누이동생 기황후와 원나라의 힘을 바탕으로 고려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경의 조성에는 최상급 재료가 사용되고 당대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가진 장인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사경이 조성된 1348년은 표지화, 변상도의 표현이 변화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비슷한 시기 조성된 사경에서 표현이 단순화, 형식화되는 것과 달리 1330년대 말, 1340년대 초의 세밀하고 사실감 있는 표현을 따르고 있는 것은 장인의 역량 차이에 따른 결과로 보았다.

서체와 변상도의 표현은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의 조성 시기를 조선 초로 추정하는 주요 근거이었다. 특히 서체는 후중건실한 필체가 곧 조선 초 시기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두 사경을 통해 서체가 시기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며 고려 말부터 변화가 시작되어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상도 표현들도 내소사본 〈묘법연화경 7권본〉과 유사함은 인정되지만 필선, 세밀함이 차이가 나고 고려 말 사경과 보다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백지금니화엄경 권29〉은 사성기가 소실되었기 때문에 조성 시기를 추정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 초가 아닌 고려 말에 조성되어진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백지금니화엄경 권26〉을 통해 두 사경은 고려 말 1348년, 표현의 변화 시기에 수준 높은 장인에 의해 조성된 사경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본 논문을 통해 사경의 편년 추정 요소와 방법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원고투고일 2020.9.18. | 심사개시일 2020.10.5. | 게재 확정일 2020.11.18. |

참고문헌

【단행본 · 도록】

『高麗史』

국립중앙박물관, 『사경변상도의 세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007.

권희경, 『高麗寫經의 연구』, 서울: 미진사, 1986.

_____, 『고려의 사경』, 대구: 글고운, 2006.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動産文化財指定報告書』, 서울: 문화공보부, 1989.

요미우리신문, 『조선왕조의 회화와 일본-소타쓰, 다이가, 자쿠추도 배운 이웃 나라의 미』, 오사카: 요미우리신문, 2008.

용인대학교박물관, 『高麗國風』, 용인: 용인대학교박물관, 2018.

장충식, 『한국사경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최완수, 『秋史名品』, 서울: 현암사, 2017.

한국국학진흥원, 『은둔과 개혁, 군자의 삶』,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18.

【논문】

권희경, 「高麗寫經의 表紙畫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17, 1999.

_____, 「年代 불확실한 高麗寫經의 表紙畫에 관한 연구(1)」, 『書誌學研究』 24, 2002.

_____, 「年代 불확실한 高麗寫經의 表紙畫에 관한 연구(2)」, 『書誌學研究』 25, 2003.

_____, 「年代 불확실한 고려후기 사경변상화의 양식분석」, 『書誌學研究』 25, 2003.

_____, 「고려후기 개인발원 고려사경 변상화의 양식분석」, 『書誌學研究』 31, 2005.

김종민, 「朝鮮時代 寫經研究」,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_____, 「麗末 鮮初 寫經書體에 대한 研究」,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문선희, 「高麗時代 『妙法蓮華經』 寫經變相圖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박도화, 「高麗金銀泥寫經畫(變相圖)의 樣式考察」, 『미술사학연구』 184, 1989.

배영일, 「고려시대 華嚴經 寫經 變相圖의 편년고찰」, 『강좌미술사』 16, 2001.

_____, 「高麗時代 華嚴經 寫經 變相圖의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이은희, 「高麗寫經書體에 대한 考察」, 『佛教美術』 6, 1981.

주남철, 김도경, 「高麗時代 觀經變相圖의 殿閣圖에 관한 研究」, 『大韓建築學會論文集』 11, 1995.

Production Date and Patrons of Korean Treasure #978: Transcription of the *Avatamsaka Sutra* (Zhou Version) in Gold on White Paper

Won Seunghyun*

Transcribed Buddhist sutras generally consist of a frontispiece illustration, sutra illustrations, and sutra text, although some parts may be lost over time. Most transcribed sutras originally include an official record of the transcription (*saseonggi*) at either the beginning or end of the volume, which document various details of the production, including who commissioned the sutra and when it was transcribed. If such records are unavailable or difficult to decipher, the date of the sutra can only be estimated by comparison to other works with known production dates. This is the case with Korean Treasure #978, the “Transcription of the *Avatamsaka Sutra* (Zhou Version) in Gold on White Paper” (hereinafter, “*Avatamsaka Sutra*, Volume 29”), which does not contain any details of its production. Based on formal comparisons, the volume has been estimated to date from the early Joseon period.

Important criteria for estimating the production date include the type of calligraphy script and the overall expression of the sutra illustrations. However, these features are missing from some early Joseon sutras, making it difficult to definitively assert which characteristics are representative of the period. Also, transcribed sutras from the late Goryeo period (after 1350) and early Joseon period are often very similar in terms of the expression of the frontispiece illustrations and sutra illustrations.

From the late Goryeo period through the early Joseon period, the illustrations of transcribed sutras, which had previously been relatively detailed and realistic, gradually became more formalized and stylized. Significantly, *Avatamsaka Sutra*, Volume 29 includes illustrations showing both styles of expression (i.e., realistic and formalized). Moreover, the hemp leaf design on the frontispiece and the border around the sutra illustrations are unique features that have never been seen on any other transcribed sutras.

Notably, however, *Avatamsaka Sutra* in Gold on White Paper, Volume 26 (hereinafter, “*Avatamsaka Sutra*, Volume 26”), which has not yet been introduced in academic research, is

* Curatorial Assistant, Exhibition Division at the National Hangeul Museum

complete with frontispiece, sutra illustrations, and sutra text. This sutra is identical to *Avatamsaka Sutra*, Volume 29 in size, composition, and details, and is thus estimated to have been produced at the same time and by the same patrons. According to the record at the end of the volume, *Avatamsaka Sutra*, Volume 26 was commissioned in 1348 by Gi Cheol (d. 1365), which corresponds to the estimated date of *Avatamsaka Sutra*, Volume 29 derived by formal comparison.

Based on this new information, *Avatamsaka Sutra*, Volume 29 was likely produced in the late Goryeo period rather than the early Joseon period, as has previously been presumed. The new study of *Avatamsaka Sutra*, Volume 26 also seems to confirm that both sutras were transcribed by highly skilled artisans in 1348 of the late Goryeo period, a transitional phase in the expression of sutra illustrations.

Keywords: Goryeo transcribed sutra, *Avatamsaka Sutra*, gold on white paper, frontispiece, hemp leaf design, Gi Cheol.